



# 멕시코의 環境

조 일 성

〈本協會 홍보부장〉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으로 옥죄어 들어오는  
공해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야말로 멕시코의 문제이며 한국의  
문제임과 동시에 노벨평화상의 문제이자 전  
인류의 문제다.

멕시코시티로 부터 차로 약 한시간 가면 코에르나바카라고 하는 작은도시가 있다. 인구 15만의 이 도시는 전에는 에밀리아노·사파타의 활동무대, 모레로스주의 한 도시로 브켄비리아, 하키란다, 노체·브에나 등등의 꽃이 사계절을 통해 피어나는 녹음질은 휴양도시이다.

코에르나바카의 인구는 15만이라고 하지만 주말이나 바캉스시즌에는 멕시코시티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고 그 결과 2배 가까이 된다. Pool 이 딸린 별장에서 사람들은 해염을 치거나 마시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 인구의 대이동의 원인 중의 하나는 멕시코시티의 오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다.

일본의 동경보다도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는 언제나 배기가스의 강렬한 냄새에 차있다. 멕시코에는 차량검사제도가 없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 위에 주변의 공장에서 뿜어내는 여러가지 가스가 늘어나서 수도의 하늘은 비행기에서 보면 누렇게 찌들어 있다. 코에르나바카의 청정하고 따뜻한 대기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신의 휴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인 셈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채퉁더백공원의 나무를姑死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뱃놀이로 알려진 소티미르코의 물은 물려드는 배수때문에 영양과다로 되어 수중식물이 이상 번식한 덕택에 수면의 면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계획없는 지하수 시설은 약한 지반을 위협하여 여기저기 지반침하를 일으키고 있다.

또 멕시코의 전설어린 강은 하수도로 부터의 오염된 물과 미테로市的 폐유 때문에 완전히 오염되었으며 그로 인해 프에브로·비에호와 다미아와의 맛있는 생선도 제유소의 폐수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있다. DDT로 인해 동북부에 있던 9만마리의 펠리칸도 멸종되었으며 많은 공장들이 멕시코 계곡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70만대의 자



동차가 매일 14km의 연료를 소비하며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을 방출, 하루 4,000톤의 스모그를 대기중에 흩뿌려 놓고 있다. 이렇게 오염도 허용량 100배가 웃도는 현상을 유네스코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설상가상으로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한달에 26톤의 먼지가 대기중에 버려져 도시를 더럽히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배기가스에 의해 열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다. 열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바람이 없을 때 대기중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함께 형성되며 스모그의 유독가스를 품은 찬공기 위에 뜨거운 공기가 덮여 찬공기의 상승이나 발산을 막아서 스모그가 정체되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올지도 모를 것이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태평양 건너의 어떤 異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미한 사건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 아픔이 어느새 내 발등아래 불로서 다가올 것이다.

굳이 멕시코의 현실을 들지 않고, 멕시코시티와 서울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이해치 않고서더라도 「환경오염문제」는 이미 우리에게서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이다.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産業化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정책과 더불어 진행된 環境公害 문제는 「성장」에 따르는 부산물로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면서 제거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피상적이고 안일하게 생각해 왔으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휘청거리고서야 문제인식에 뒤늦은 접근을 시작한 것이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의 파행적 집결지인 서울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 그 파행적구조가 심화되었고 파행성으로 인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였다.

그리하여 인구의 집중 및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는 식수에서부터 시작하여 대기문제까지 치달았으며 결국 멕시코의 수

도 멕시코시티와 견줄 만큼의 상태까지는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어서의 공해문제를 시민의 생활환경, 건강 및 재산상의 위해나 손실을 야기시키는 인위적인 재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장, 업무상업용 건물 및 가정의 오수에 의한 수질오염, 과일 및 채소류의 농약오염에 의한 중금속 중독, 각종 원인에 의한 소음, 쓰레기처리 문제, 도시계획 실패로 인한 상·하수도문제 등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이러한 도시의 공해문제는 넓은 의미에서의 도시문제의 한 일부분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이것은 도시문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타의 문제(교통문제, 주택부족, 주거환경의 악화, 각종 범죄, 노인문제 등)와 상호인과관계의 고리를 형성하여 더욱 악화되는 메카니즘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공해문제가 사회문제의 저간을 이룬다 하여도 그다지 과언은 아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는 생활향상, 다시 말해 GNP의 증가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로인해 오늘과 같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부수적 산물로서 생태계의 파괴라는 원치않는 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으로 옥죄어 들어오는 공해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가야말로 멕시코의 문제이며, 한국의 문제임과 동시에 노벨 평화상의 문제며 전 인류의 문제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다」는 말과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公害, 서울과 멕시코시티라는 同格的 時事的 의미는 아닐런지.

